

조선후기 유자(儒者)의 유배 한시 연구

- 다산·추사·면암 중심으로*

윤인현**

<차례>

1. 서론(序論)
2. 조선후기 유자(儒者)의 유배 한시를 통해 본 의미
 - 1)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청렴함과 온유돈후(溫柔敦厚)
 - 2)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숭모(崇慕)와 실증(實證)
 - 3)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의지와 사무사(思無邪)
3. 결론(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유자의 유배 한시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유자이면서 유배객이 된 다산 정약용·추사 김정희·면암 최익현 등 세 분이 유배지에서 지은 한시를 통해 철저한 유자들이 지녔던 사상과 생각을 고찰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까지 검토하여 그들의 특징을 드러내보고자 한 것이다. 세 유자의 유배 초기와 유배 말년, 그리고 유배지에 따라 생각과 생활은 어떠했으며 유배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유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논문이다. 그 결과 다산은 유배지에서의 슬픔과 자기 위안을 넘어 유배지 토착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한 작품과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잘못된 현실에 함께 분노하는 한시를 창작하여, 당시 유자들의 문학과는 다소 차이 나는 적극적 자세로서의 온유돈후의 모습을 보였다. 추사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숭모하는 대상과의 일체감과 달관의 자세로 유배의 어려움을 소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젊은 시절 영향 관계로 인한 실증적 고증에 임하는 이론가의 모습을 보였다. 면암은 성리학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프린티어학부대학 교수

의 의리사상을 주창하면서 외세가 침략하는 시대에 개인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우국지사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적 표현은 충절의 의식을 담아 직설적이었지만, 작시자의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사무사의 경지를 보였다.

□ 유자, 유배문학, 다산의 온유돈후, 추사의 송모와 실증, 면암의 사무사

1. 서론(序論)

生六臣의 한 사람이었던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시문학에는 굴원상이 자주 등장한다. 굴원이 매월당의 시적 형상화에 이바지한 것처럼, 유배객의 문학에 굴원을 소재로 한 시가 많은 이유를, 조동일 교수는 ‘현실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은 불가항력을 느낄 때 굴원이 강하게 소생한다.’¹⁾라고 하였다. 생육신의 삶을 살았던 매월당도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자신의 신념이 달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찍이 충언을 고하다가 추방된 충절의 대명사 굴원을 생각했던 것이다. 조선 중기 굴곡의 삶을 살았던 西浦 金萬重(1637~1692)도 松江 鄭澈(1536~1593)의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속미인곡>을 戀君之情의 작품으로 비유하여 동방의 <이소(離騷)>라 하였다.

이 충절의 대명사인 굴원을 조선 후기 儒者들은 자신의 유배문학에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유배된 자신의 억울함 내지 자탄과 위안을 위한 소재로 활용되어 거듭나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나타냈는지 등을 살펴 그들의 유배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대 별로 서로 다른 주변의 환경과 함께 작가 개인들이 처한 정치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유배’라는 형벌에 각기 대응하는 방식도 달랐을 것이

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1, 218쪽.

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비로소 유배문학의 온전한 실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배문학은 경제제민의 이상이 좌절된 상황에서 겪는 작가 개인의 삶이 반영되기에 각 개인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극복 방법도 다를 것이다.

조선후기 유자의 유배문학 특징을 고찰하는데 茶山 丁若鏞과 秋史 金正喜, 그리고 勉菴 崔益鉉, 세 유자를 텍스트로 삼은 것은 모두 2번 혹은 그 이상에 준하는 流配歷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배기간 또한 짧지 않다. 이들은 조선후기 대표적 유자이면서 유배 생활을 하였기에, 유배 중에 창작한 한시를 살펴 그들의 삶을 조망해 보면 조선후기 유자의 유배 생활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거나 잘못 해석한 경우도 있기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세 儒者의 유배문학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문학에 대해, 임형택 교수는 다산의 강진 유배 시 교육활동과 성과를 통해 강진 읍내 제자와 다산초당 시절 제자를 소개하면서 특히 다산초당의 18제자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였으며²⁾, 윤상순은 유배 길의 이별시에 나타난 고통과 장기에서의 애민 사상, 그리고 강진에서의 경제가 연구 등을 밝혔다.³⁾ 탁현숙은 유배 시 아들과 둘째 형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낸 서간문을 분석하여 다산의 인생관을 이끌어 냈고⁴⁾, 김봉남은 다산의 첫 번째 유배지인 장기에서의 심리 변화에 맞춰 내면의식을 분석하기도 하였다.⁵⁾

2) 林煥澤, 「丁若鏞의 康津 流配時의 教育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권, 한국한문학회, 1998, 113~150쪽.

3) 尹相淳, 「다산의 유배시 연구-신유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1~72쪽.

4) 卓賢淑, 「茶山 丁若鏞의 流配書簡 研究」,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1~52쪽.

5) 金奉楠, 「茶山의 長鬢 流配期 詩에 含蓄된 內面意識의 諸樣相」, 『大東漢文學』 35, 대동한문학회, 2011, 365~395쪽.

신두환은 다산의 유배 정서를 屈騷의 미의식으로 연구하였고⁶⁾, 진재교는 다산의 유배시기의 시문은 정치권력의 향배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다.⁷⁾ 고 하였다. 김치완은 다산의 유배문학 특징은 비판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인에게 거는 민중의 희망이 반영된 우환의식⁸⁾이라고 했다. 류소진은 다산이 同病相憐의 처지에서 소동과 시를 차운하여 유배의 시련을 견디어 내고자 했다.⁹⁾고 하였다. 하지만 다산의 선행 연구 중 다산의 농민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룬 연구는 미미하였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문학에 대해서, 양순필은 추사의 신세 한탄과 은둔·도피적 내용, 그리고 연군지정과 자연애 등¹⁰⁾이 다소 있다고 하였다. 김태수는 유배문학을 3단계로 분석하였다. 현실과의 내적 갈등의 모습과 현실적 생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현실의 갈등을 넘어선 탈현실의 양상과 실학적 감흥의 세계 곧 실증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주제적 역사를 인식케 하였다.¹¹⁾고 했다. 조규백은 추사의 제주도 유배문학을 소동과와 관련지어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¹²⁾ 이호순은 추사의 제주도 유배시기 시·서·

6) 신두환, 「朝鮮士人들의 楚辭 受容과 그 美意識」, 『漢文學論集』 30집, 근역한문학회, 2010, 125~151쪽.

7) 진재교, 「조선조 후기 政治 場에서의 권력향배와 한문학-茶山 丁若鏞의 문학을 읽는 하나의 방법」, 『古典文學研究』 제46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337~372쪽.

8) 김치완, 「금정찰방 좌천시기를 전후한 다산의 시문학 연구- 자정(自靖)과 자헌(自獻)의 의식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23집, 영주어문학회, 2012, 49~85쪽.

9) 류소진, 「丁若鏞의 유배 시기 和蘇詩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 『중국문학』 9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235~254쪽.

10)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2, 1~157쪽.

11) 김태수, 「秋史의 流配詩 研究」,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1~89쪽.

김태수, 「秋史의 流配詩 研究」, 『漢文學論集』 第10輯, 檀國漢文學會, 1992, 229~272쪽.

12) 조규백,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중국문인 蘇東坡와 관련하여」, 『중국연구』 제3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3, 193~212쪽.

화의 공통된 미감은 古拙美·文字香·書卷氣·中和美·金石氣·法古創新 등¹³⁾ 이라고 하였다. 부영근은 추사를 예술가의 관점에서 자연을 관조하고 내면의 조화를 추구하여 진정한 구도자적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고뇌를 털고 그리움을 삭이면서 유배 환경을 수용하였다.¹⁴⁾고 하였으며, 왕건우는 추사와 동파의 유배 시를 대비하면서, 율격 같은 형식을 수용하기보다는 시의 내용이나 인생 태도를 수용했다.¹⁵⁾고 하였다. 서명주는 유배시기 茶詩文學에 나타난 그의 의식세계의 확장과 시적 변용을 통해 나타난 정서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¹⁶⁾ 홍성민은 추사의 제주 유배시절 삶과 문학을 철학적 시각에서 의미를 부여하였고,¹⁷⁾ 박성혜는 추사의 제주도 유배지 문학을 소식의 유배문학과의 관련성을 들어 자발적 유배자들에게 치유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치유의 방법은 유배자들이 그곳 환경을 받아들이고 즐기듯이 자발적 유배자들도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빠져 장기적 사고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⁸⁾ 일부 선행 연구에서 연군지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도 드러내었다.

면암 최익현의 유배문학에 대해, 안병렬은 면암의 대부분의 시가 유배시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의 유배 시는 君子의 道가 있다.¹⁹⁾고 하였다.

13) 이호순,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 연구-제주도 유배기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7권,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2004, 120~137쪽.

14) 부영근,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 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23~47쪽.

15) 王建宇, 「金正喜와 蘇軾의 流配詩 比較 研究」, 중앙대 석사논문, 2017, 1~114쪽.

16) 서명주, 「秋史 金正喜의 流配期 정서와 茶思想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8, 1~168쪽.

17) 洪性敏, 「유배(流配)에서 자적(自適)으로」, 『儒教思想文化研究』 第77輯, 한국유교학회, 2019, 36~60쪽.

18) 박성혜, 「소식과 김정희의 유배문학작품을 통한 고전치유-제주 자발적 유배자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67~94쪽.

19) 안병렬, 「정환숙·송민호, 양교수 회갑기념 특집호: 면암 한시의 내용 고찰」, 『어문논

김경국은 면암의 한시를 시대적 상황에 바탕하여 주제별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유배 시에서 지사적 면모가 드러났음을 밝혔다.²⁰⁾ 한창훈은 면암의 제주 유배 한시 11수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충의식의 직설적 발로와 제주도 자연 상찬 등으로 분석하였고²¹⁾ 방정옥은 면암의 유배 시를 우국이 깃든 민족주의 색채를 띤 시로 규정하였다.²²⁾ 양진건과 강동호는 면암의 유배 한시를 통해 조선후기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을 송시열에 대한 외경심과 서원에 대한 면암의 교육적 태도가 일관된 점을 고찰하였다.²³⁾ 서성우·양보경은 면암의 흑산도 유배문학을 통해 그의 소통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공적 영역의 정명과 사적 영역 은둔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²⁴⁾ 한편으로 선행 연구에서 면암의 문학을 직설적 충절의 문학으로 단정하여, 문학적 미감의 결여를 주장한 연구도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세 유자(儒者)의 유배문학의 특징을 유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산의 연구 중 어느 누구도 〈오죽어행〉이 굴원의 〈어보사(漁父辭)〉를 點化하여 창작된 줄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추사에 대한 일부 연구자는 유배 시기 중 戀君에 대한 시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출사를 단념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면암의 연구에서는 유자가 賞自然을 하면서 戀君을 행하는 것이 성리학자의 한계라고 지적하였고, 문학적으로 미적 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내용과 주장의 타당성을 아울러 살펴 그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자 한다.

집』 23권, 민족어문학회, 1982, 321~348쪽.

20) 金景國, 「勉菴 崔益鉉의 漢詩 研究」, 제주대 석사논문, 1989, 1~56쪽.

21) 韓昌勳, 「勉菴 流配漢詩 研究-제주도를 중심으로」, 『白鹿語文』 第7輯,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0, 161~180쪽.

22) 方貞玉, 「勉菴 崔益鉉의 文學研究」,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1~60쪽.

23) 양진건·강동호, 「면암 최익현 제주 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 논총』 제3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49~72쪽.

24) 서성우·양보경, 「면암 최익현의 흑산도 유배 한시에 드러난 소통의식」, 『韓國詩歌文化研究』 제37집, 韓國詩歌文化學會, 2016, 137~158쪽.

유배라는 극단적인 삶의 방식에서도 나름대로 극복 방안은 있을 것이다. 최재남은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에서 그 유형을 3가지²⁵⁾로 제시하였다. 대체로 고통의 내면화인 자신의 결백함과 자탄을 거쳐 내 잘못이라는 자기위안으로 위로삼고, 창조적 상상력으로 연결시켜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전개되는 것이 유배문학의 일반적 수순인 것 같다. 본고는 유배문학의 일반적 특징을 전제로, 어떤 인물을 모델로, 아니면 어떤 사유를 통해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그들의 가치관이면서 지향하고자 했던 삶의 방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조선후기 유자의 유배문학을 살펴보는 궁극적 이유이면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조선후기 유자(儒者)의 유배 한시를 통해 본 의미

1)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청렴함과 온유둔후(溫柔敦厚)

다산 정약용은 유형원(柳馨遠)·이익(李瀾)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조선후기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주장하면서 토지개혁과 농민생활의 안정을 꾀한 실용적인 학자였다. 다산의 첫 번째 유배는 1789년 가톨릭 교인이라는 공서파의 탄핵을 받아 海美에 10일간 유배 간 것이다. 이때 남긴 한시는 없다. 두 번째 유배는 1800년 正祖 死後, 노론 벽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노론 벽파는 1801년 2월 천주교도들이 청나라 주문모 신부를 끌어드려 역모를 꾀했다는 죄명을 내세워 신사사옥을 일으켰다. 이 때 매형 이승훈,

25)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韓國漢詩研究』 28, 韓國漢詩學會, 2005, 1~11쪽. “유배체험의 내면화 양상, 1. 고통을 내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2.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자기 위안, 3.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변환하는 경우 등.

둘째형 정약전, 그리고 셋째 형 정약중 등과 체포되어 2월 27일 경상북도 장기(영일만)로 유배되었다. 10월에는 큰 형님 정약현의 큰 사위 곧 다산의 조카사위인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인해 서울로 압송된 후 11월에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1818년 9월에 해배되었다.

다산은 자신이 유배당했을 때 지은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又示二子家誡〉에, “근래에 내가 상자 속의 옛 시의 원고들을 점검해 보니, 귀양살이하기 이전엔 金馬玉堂[한림원과 홍문관]의 사이를 훑힐 날 땀었는데도 그때 지은 시편들은 대개가 쓸쓸하고 괴롭고 우울한 내용이었고, 강기에서 유배 살던 때에 지은 시에서는 더욱 우울하고 슬픈 기상이었으며, 강진에 귀양 온 이후의 작품들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활달하며 확 트인 시어들로 되어 있었다.”²⁶⁾라고 하였다. 이는 유배 체험의 내면화 양상으로 1차적 반응인 슬픔과 걱정, 자기 결백을 거친 후 창조적 상상력으로 연결시켜 고통을 완화시킨 결과일 것이다.

가경 신유년(순조 1년, 1801년) 2월 말, 장기 유배 길에 오르면서 지은 〈石隅別〉·〈沙坪別〉·〈荷潭別〉 일명 三別詩는 일가친척과 처자식 그리고 부모님 무덤에 하직 인사 올리는 장면으로 슬픈 정조이다. 3월 9일 장기에 도착하여 〈기성잡시〉 26수를 지었는데, 그 중 한 편에, “아지랑이도 아니요 구름도 아닌 보리가 크는 하늘, 복숭아는 술 취한 듯 버들눈은 조는 듯. 어찌 슬슬 걸어 산 구경 같 생각이야 없으랴만, 다만 틀어박혀 지은 죄를 생각할 뿐이라네.”²⁷⁾라고 하여, 봄이 왔지만 술이 취한 듯 조는 듯한 경치도 보고픈 마음은 있지만, 오직 방 안에 틀어박혀 곰곰이 지은 죄만 생각하는 자탄(咨歎)의 모습이다.

26)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十八卷 ‘文集’ 「家誡」3, 「又示二子家誡」. “近日余檢余箱中舊藁, 風霜以前, 翱翔乎金馬玉堂之間, 而所作詩篇, 皆淒楚壹鬱. 至長髻謫中詩, 尤幽咽可悲. 至康津以後之作, 多曠達恢廓之語.”

27)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讐城雜詩二十六首」 제18수. “非靄非雲養麥天, 小桃如醉柳如眠. 緩豈無步看山意, 只得深居念罪愆.”

강직하면 세상 살기 참으로 어려워,	骯髒深知涉世難,
광대들이 떼로 모여 유자라면 비웃어대지	俳優叢集笑儒冠.
열정이라곤 전혀 없이 적은 녹이나 다투고,	都無熱肺爭微祿,
달관이나 꿈꾸면서 얼굴빛은 안 그런 체.	未作卑顏事達官.
행단에서 술이나 놀러 앉아 마시고,	紅杏園林留酒飲.
이끼 낀 집에 앉아 책을 들고 보기도 하지.	綠苔門巷抱書看.
배를 삼킬 큰 고기는 큰 바다 못 만나서,	吞舟不遇瀛溟水,
뉘시 물고 뉘싯대에 매달리기 일쑤라네.	容易含鉤上竹竿. ²⁸⁾

위의 〈自笑〉는 유배문학의 심리 변화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모든 일의 원인이 세상 탓이다. 자신의 강직한 성품 때문에 세상살이 힘들다. 그리고 광대들은 유자를 벼슬자리나 다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위선적인 태도를 비웃는다. 또한 행단(杏壇)에서 공부보다는 음주나 하고 걸핏하면 세상을 잘못 만나, 뉘시 바늘에 걸려 낭패를 본다. 아직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남이나 세상을 탓한다.

내가 생각하는 옛 분 거원을 생각하네.	我思古人思蘧瑗.
지난 잘못 알았으니 무슨 원망 있었으리.	能知昨非斯無怨.
거원은 사십구 년 잘못을 했다지만,	蘧瑗四十九年非,
십 년 젊은 나로서는 더욱이 바라는 바지.	我少年尤可願.
지금부터 노력하여 큰 잘못이 없도록,	自今勉力無大咎,
옛 분을 생각하여 더욱 건실해야겠네.	我思古人行益健.

내가 생각하는 옛 분 소무를 생각하네,	我思古人思蘇武,
북해의 유수생활 끝내 탈 없지 않았던가.	北海幽囚終免瘦.
소무는 유수생활 십구 년을 하였는데,	蘇武一十九年囚,

28)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自笑」 10수 중, 제5수.

이상하게 그의 일 년이 나에게는 하루였다. 我以日易尤異數.
(후략)

내가 생각하는 옛 분 한유를 생각하네, 我思古人思韓愈,
佛法 공격 했던 죄로 남쪽으로 귀양 갔지. 坐攻佛法謫南土.
한유가 귀양 간 곳 팔천여 리 먼 곳인데, 韓愈八千餘里謫,
옛날 천 리가 지금 나에게겐 백 리로 되었구나. 彼千我百殊今古.²⁹⁾
(후략)

위의 시는 슬픔과 분노, 자탄 그리고 남의 탓을 넘어 이제는 修身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시이다. 첫 번째로 예를 든 옛 분은 춘추시대 衛나라 대부 거백옥이다. 거백옥은 나이가 知天命이 되어서 49년 동안 잘 못 살아왔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다산도 不惑인 지금 노력하여 앞으로 큰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두 번째 연에서는 소무의 행적을 본받고자 한다. 소무는 한 무제 때 흉노에 사신 갔다가 19년을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생각해 보니 내가 장기에 유배된 지 19일째이다. 하루가 소무의 1년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늘의 조화를 배워 번뇌를 없애고자 한다. 세 번째는 당나라 한유이다. 한유는 현종이 佛舍利를 참배한 데 대해, 「論佛骨表」를 올려 한 나절 만에 조수자사로 좌천되어 팔천 리를 떠나야 했는데, 다산은 팔 백리 강진에 왔다. 한유에 비하면 鳥足之血로, 떠돌이 신세 슬픈 일도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야박한 풍속 참으로 왜들 그럴까? 뜯소문 들으면 아직도 불안하기만 해. 별 수 있나 그 대로 받아 들여야지 세상살이란 원래가 어려운 길인데”³⁰⁾라고 하여, 현실

29)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我思古人行」 3장 장6구.

30)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家僮歸」 “薄俗真堪惜, 浮言尙未安. 嗟哉亦順受, 度世本艱難.”

의 처지를 수용하였다.

〈古詩〉 27수 중 제4수는 당쟁의 폐해를 지적하고 난 후 “그 다투서 큰 잔치를 열어, 화려한 집마다 장막을 둘러치고 천 항아리에 빚어 넣은 술과, 만 마리 소 잡아 만든 전골로, 함께 앉아 옛 폐습 다 버리기로 하고, 평화로운 복을 맞게 하려나.”³¹⁾로 노래하여, 복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면서 ‘떠도는 흰구름’³²⁾과 ‘부평초’³³⁾를 뿌리 뽑힌 자신으로 여겨 탄식하였으며, ‘연못 안 물고기가 큰 포부를 안고 큰 바다로 갔다가 교룡과 큰 고래를 만나 위기에 처했는데, 용왕이 세찬 비를 내려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³⁴⁾고도 했다. 마치 장기에 유배 온 다산 자신의 모습을 떠도는 구름과 포부를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물고기에 비유한 것 같다. 용왕이 거센 비를 내리듯이 다산 자신에게 하루빨리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원한 것이다. 또한 “임금님 은혜로 목숨은 남았으나, 촌 노인들 내 모습 가여워하네. 나라 다스리는 방책을 알려거든 마땅히 농부들께 물어야 할 일”³⁵⁾이라고 하여, 농민이 나라의 근본임을 깨닫고 있다. 또한 장기 농가에서 “어저귀(아욱과 남새) 먼저 베고 삼밭에 호미질, 늙은 할멈 쭉대머리 밤에야 빗질하며. 일찍 지는 침적 영감 발로 차 일으키네. ‘풍로에 불붙이고 물레도 고쳐야지.’”³⁶⁾라고 하여, 시골의 촌로들을 비속하게 여기지 않고 시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 고을 농민들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鬢城雜詩〉 26수와 〈長鬢農歌〉 10장을 통해 장기의 농촌 생활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가 갔

31)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古詩」 제4수. “誰能辦大宴, 帟幕張華屋. 千甕釀爲酒, 千甕釀爲酒. 同盟革舊染, 以徼和平福.”

32)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古詩」 제5수.

33)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古詩」 제7수.

34)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古詩」 제6수.

35)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楡林晚步」 제2수. “主恩餘性命, 村老惜形容. 欲識治安策, 端宜問野農.”

36)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詩集」 詩 「長鬢農歌」 제6장. “蠶麻初剪牡麻鋤, 公姥蓬頭夜始梳. 蹴起僉知休早臥, 風爐吹火改縑車.”

으며, 〈打麥行〉을 통해 농민의 건강한 삶을 노래하였다. “밥 먹고는 도리깨 들고 타작마당 나가서니, 검게 탄 두 어깨가 햇볕 아래 번들번들. 응차응차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금방 사이 보리 이삭 질펀하게 널려 있다.”³⁷⁾ 마치 보리타작하는 마당에 서 있는 느낌으로, 농민들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이 밖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³⁸⁾과 가족들이나 친지들에 대한 염려³⁹⁾ 등을 노래하였다.

다산(茶山)은 장기 유배 시 굴원의 〈어보사(漁父辭)〉⁴⁰⁾를 모방한 〈오죽어행(烏鰂魚行)〉에서 자신의 결백을 노래하였다. 〈오죽어행〉은 오징어와 백로의 대화체이다. 오징어가 물가에 노닐다가 희기가 눈결 같은 백로에게 하는 말이 ‘나는 배속에 먹물이 있어 한 번 뺨으면 물고기들이 지척도 분간 못해, 입만 벌리면 배부르게 잡아먹을 수 있지. 백로 자네는 유별나게 희기만 하여 물고기들이 먼저 알아보고 달아나지. 그러니 적당히 검게 해서 편안하게 살아 보세.’라고 하였다. 이에 백로의 대답과 오징어의 반응을 보자.

“자네 말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汝言亦有理,
하늘이 나에게 결백함을 내리셨고,	天既賦予以潔白,
스스로 살펴봐도 더러운 곳 없으니.	予亦自視無塵滓.
내 어찌 조그마한 이 배를 채우려고,	豈爲充竈一寸嗉,

37)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打麥行」. “飯罷取耨登場立, 雙肩漆澤翻日赤. 呼邪作聲舉趾齊, 須臾麥穗都狼藉.”

38)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夜」·「戲作菖溪圖」·「田園」·「穉子寄栗至」·「薄醉」·「西山遷人之思也 離其室家不能安土焉」.

39)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別家五十有八日 始得家書 志喜寄兒」·「得舍兄書」·「寄兒」.

40) 어부(漁夫)는 고기잡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라는 뜻이고, 어보(漁父)는 고기잡이를 취미로 하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보(父)가 이때는 접미사로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다. 먹보·울보·떡보 등의 ‘보(父)’이다. 굴원의 「어보사(漁父辭)」에 나오는 어웅은 고기잡이를 취미로 하는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독음을 어보(漁父)로 읽어야 한다.

모양까지 바꾸면서 그같이 하겠는가?	變易形貌乃如是.
고기 오면 잡아먹고 달아나면 좇지 않고,	魚來則食去不追,
꽃잎이 서 있다가 天命을 기다릴 뿐.”	我惟直立天命俟.”
오징어 화를 내며 먹물을 뿜으면서,	烏鯽含墨噴且噴,
“어리석다 백로여, 굶어죽어 마땅하리.”	“愚哉汝鷺當餓死.”

〈오죽어행〉은 가난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깨끗하게 처신하는 백로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징어를 대조시킨 작품으로, 굴원의 〈어보사(漁父辭)〉 내용을 點化 곧 換骨奪胎한 시이다. 〈오죽어행〉의 오징어와 백로의 대화는 〈어보사〉에 나오는 굴원과 어보(漁父)와의 대화 내용을 우화시로 변용하여, 新意를 더했기 때문이다. 굴원의 〈어보사〉는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인가를 밝힌 글이다. 이에 다산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백로에 비유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밝혔다.

다산도 노론 벽파의 견제 속에서 백로처럼 세상을 살고자 했다. 마치 굴원이 상강 가에 추방되어 〈어보사〉를 지었듯이 다산도 장기에 유배된 후 굴원과 같은 청렴결백한 심정으로 이 시를 지은 듯하다. 그래서 글의 구조와 내용도 〈어보사〉와 유사하다. 이렇듯 장기에서의 다산은 굴원의 청렴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800백리 먼 타향에 떨어진 다산은 우연히 시냇가에서 홀로 핀 해당화 한 그루를 보고, 동파의 〈우거하던 정혜원의 동쪽에 온갖 꽃이 산 가득한데 그 속에 해당화 한 그루가 있는데 본토인들이 귀한 줄을 몰라서〉⁴¹⁾라는 시에 차운한 시가 있다. 송동파는 이 시에서 해당화를 아름다운 사람에 비유하면서 자신과 같은 땅인 축에서 떠나온 나그네로 인식하면서 “하늘 끝

41) 蘇軾, 『蘇東坡全詩集』第三卷, 誠進社, 1978, 305~307쪽. 「寓居定惠院之東, 雜花滿山, 有海棠一株, 土人不知貴也」.

에서 떠도는 것에 생각이 같다.”⁴²⁾고 하였다. 다산도 <우연히 시냇가에 갔다가 해당화 한 그루가 이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는 동파가 정혜원에서 해당화를 읊었던 일이 생각나 드디어 그 운을 차운하다>⁴³⁾에서, 마치 대나무 같은 해당화의 고고함을 예찬하면서 나무꾼들이 해당화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다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쓸쓸함을 노래하였다. 역시 동파 시에 차운한 시로 <수선화 노래, 또 소식의 운에 차운하다>⁴⁴⁾를 지어 유배지에서의 괴로움을, 같은 고난을 겪은 소동파를 통해 이겨내고자 했던 것이다. “못나무는 넓디넓은 진토에서 자라는데, 맑은 물에 뿌리 내린 너 혼자 유별나구나. 한 점의 진흙에도 더럽힘을 받지 않고, 깨끗한 얼굴모양 세속을 벗어났다.”⁴⁵⁾로, 수선화의 순결함을 다산 자신에 비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얀 꽃은 설 안에 피는 매화 압도하고, 푸른 잎은 서리 맞은 대나무와 꼭 같구나.”⁴⁶⁾라고 하여, 대나무 같은 곧은 절개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같은 유배의 형극을 받은 소동파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여 시로 형상화했다는 것은 자신도 ‘소동파처럼 유배 생활을 무사히 잘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위(自慰)’⁴⁷⁾뿐만 아니라 청렴함과 절개까지 보여 준 경우라 할 것이다.

가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1801년 10월 20일 밤에 다시 체포되어 27일 서울로 압송되어, 옥중에 있다가 11월 5일 성은(聖恩)으로 인해 둘째 형

42) 蘇軾, 「寓居定惠院之東, 雜花滿山, 有海棠一株, 土人不知貴也」, 『蘇東坡全詩集』 第三卷, 誠進社, 1978, 305~307쪽. “天涯流落俱可念.”

43) 『輿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偶至溪上, 見玫瑰一樹, 嫣然獨開, 因憶東坡於定惠院賦海棠花, 遂次其韻」.

44) 『輿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水仙花歌, 復次蘇韻」.

45) 『輿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水仙花歌 復次蘇韻」. “塵土地澆寄衆木, 清水托根清且獨. 一點泥滓不受澆, 顏色皎然離時俗.”

46) 위의 책 “白華終壓臘前梅, 翠葉眞同霜後竹.”

47) 류소진, 「丁若鏞의 유배 시기 和蘇詩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 『중국문학』 9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240쪽.

정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현으로 이배되면서 소동과 시에 次韻한 시를 남겼다.⁴⁸⁾ 이는 소동과가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 당시의 슬픈 심정을 밝힌 것처럼, 지금 다산도 흑산도로 유배 가는 중형 생각과 자신의 처지에 슬픈 마음이 든 것이다. 한시에서 이런 심정을 후대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하지만 강진에서의 다산의 유배생활은 소극적 자세를 넘어 적극적 자세로 전환되었다. 다산은 1802년에 창작한 <탐진농가>에서 남편을 밭상과 유사한 “반상(盤床)”이라고 부르는 말과 모내기 할 때 돈으로 품삯을 사는 “돈모[錢秧]”, 밥을 제공하고 품삯을 감하는 “밥모[飯秧]” 등의 토속어의 토착화를 통해 농민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1803년에는 강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애절양(哀絶陽)>으로 그려 당시 군정의 문란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황구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의 실상을 생생하게 반영하였다. 다산의 현실 비판적 태도는 1810년 田間紀事에도 나타났다. <채호(采蒿)>와 <밭묘(拔苗)>는 흉년이 들어 썩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고, 기뻐서 移種을 못해 모를 다 뽑아야 하는 현실에 셋 아들 중 한 아들을 받쳐서라도 비만 올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아낙네의 처절함이 있다. <교맥(蕎麥)>에서는 모내기를 못한 눈에 구황 작물인 메밀 종자를 심을 수 있도록 조정에서 내렸는데, 탐관오리는 나누어 주지도 않고 메밀을 심으라고 독촉하고 협박함에, 죽을 지경에 처한 농민의 모습을 그렸다. <오거(熬麩)>에서는 흉년으로 겨와 모래가 섞인 보리죽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풍자하였고, <시랑(豺狼)>과 <유아(有兒)>에서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이산하고 자녀들을 길가에 버려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⁴⁹⁾ 이와 같은

48)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四卷 「獄中和東坡西臺詩韻」.

49) 『與猶堂全書』, 『詩文集』 第五卷 「采蒿」·「稻苗」·「蕎麥」·「熬麩」·「豺狼」·「有兒」 참조.

현실을 반영한 다산의 문학은, ‘유자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다.’는 선비정신의 발로로, 세상과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溫柔敦厚⁵⁰⁾인 것이다. ‘온유’는 성품이 따스하고 부드럽다는 말이고, ‘돈후’는 인정이 두텁고 두텁다는 뜻으로, 인정을 곡진하게 드러내는 참된 내용의 시를 평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온유돈후는 시가 사람의 성정(性情)을 순화하여 풍교(風敎)나 세교(世敎)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다산의 농민을 소재로 한 한 시들은 현실 참여적 자세로 세상의 풍속을 교화해 나가는 데에 온유돈후한 시였다.

또한 다산의 강진에서 시작 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농민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그 농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탐진농가>에 “납일에 훈풍 불어 눈이 맑게 개었는데, 올 밖엔 이라 쯤쨌 쟁기 끄는 소리란다. 주인 영감 막대 치며 머슴 보고 호통치네. ‘금년에는 어찌자고 두 벌 같이 이제 하나?’ 무논에 물 뺀 후에 보리를 심고, 보리 벼엔 곧이어 모내기 하세. 땅의 기운을 하루라도 놀릴 수 있으리요, 푸른색 누런색 철따라 이름답네.”라고 하여, 농민의 목소리이다.

<僧拔松行>에서 ‘작년 바람에 꺾인 나무를 중이 법을 범했다고 다짜고 짜 몰아붙여 돈 일 만 냥을 집어주고 겨우 때워 넘겼다⁵¹⁾’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린 소나무를 일찍이 뽑아 화근을 없애 버린다.’는 가림주구를 풍자하였으며, <獵虎行>에서 호랑이 사냥에 동원된 군졸들이 호랑이는 잡지 않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여 ‘호환보다 더 무서운 화를 당하게 되었다.’⁵²⁾는 것이다. 그리고 1810년에 두보의 三吏인 <新安吏>·<潼關吏>·<石壕吏> 시에 차운하여, <龍山吏>·<波池吏>·

50) 『禮記』「經解」篇,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51) 『輿猶堂全書』, 『詩文集』第五卷「僧拔松行」“枉捉前年風折木, 謂僧犯法撞其胸. 僧呼蒼天怒不息, 行錢一萬纔彌縫.”

52) 위의 책, 「獵虎行」.

〈海南吏〉를 지어 관리의 가렴주구를 풍자하였다. 이후 『여유당전서』에는 1811년부터 1827년까지의 시가 전하지 않는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내 편지에는 詩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기연아(寄淵兒)」에서 “임금을 사랑하거나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거나 풍속을 분히 여기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며, 찬미하고 풍자하고 善을 권장하고 惡을 징계하는 뜻이 없으면 시가 아니다.”⁵³⁾라고 하였다. 다산은 이 편지에서 나라를 근심하고 동시에 임금을 좋은 임금이 되게 받들고, 민생을 염려하기에 안타까운 시대 풍속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善政을 찬미하고 포악한 정치를 풍자하며 善을 권장하고, 惡을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의 참된 비판정신을 지니는 것이 시 짓는 사람으로서 먼저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본자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가 온유둔후인 것이다. 다산의 이런 기본적인 시정신이 그의 현실 참여적 풍자시에 담겨 있다. 따라서 다산은 강진 유배지에서 보고 느낀 현실의 아픔을 시로 형상화하여 勸善懲惡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선비정신을 지닌 유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산은 〈示二子家誡〉에서 시 짓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배 이전에 지은 시는 대부분 화답하거나 남의 요구로 책임막이로 지었다고도 하였다. 간혹 감흥이 일어나 시를 짓기는 해도 공들여 지은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유배되면서 지은 시에는 현실의 괴로움을 토로한 시도 있다고 하면서, 자후 유종원의 유배기 글들이 처량하고 구슬픈 언어로 되어 있어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시 짓는 일도 그만 둘 정도’⁵⁴⁾라고 했다. 아마도 다산이 시 짓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書經』의 “玩人

53)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一卷, 「寄淵兒」,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54) 『與猶堂全書』『茶山詩文集』卷十八, 家戒2, 「示二子家誡」 “余性不喜詩律, 辛酉以前, 概是應求塞徵, 或有漫興閒吟, 都非經意用力者, 洎自流落所作, 不能無酸楚, 緣余平生恥柳子厚謫中諸文, 率多咽咽淒悲語, 遂廢之.”

喪德, 玩物喪志.” 곧 “사람을 가지고 희롱거리를 삼으면 선비의 덕을 잃게 되고, 기물을 가지고 희롱거리를 삼으면 선비 본래의 참된 뜻을 잃게 된다.”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선비가 문예의 공고로움에 빠지면 군자다운 선비의 길을 행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귀양살이를 하다 보니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편안한 생활처럼 여겨져서 어떤 때는 산에도 오르고 물가에도 나아가 회포가 확 트이면 그 뜻을 방출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는데 그 문장과 뜻이 호탕하였다. 그러나 나의 지극한 즐거움은 經傳에 있었기에 끝내 퇴고에 유념(留念)하지 않아서 문집 속에 실은 여러 시들이 대부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나를 위하여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아름답고 선명한 것들만 남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다.⁵⁵⁾

다산이 바라던 대로 장기 유배 시의 청렴결백과 농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시, 그리고 강진 유배 시기의 현실 참여적 시는 아름답고 선명하면서 온유둔후한 시라 할 것이다.

2)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숭모(崇慕)와 실증(實證)

추사 김정희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금석학자·고증학자이면서 문인이다. 추사는 24세 때 사마시에 합격한 후 자제군관 자격으로 사행 길에 올라, 청나라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완원(阮元, 1765~1848)을 만나 삶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옹방강의 東坡 사랑이 추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선왕실의 외척으로 벼슬살이 하던 추사는 10년 전 부친 김노

55) 『與猶堂全書』 『茶山詩文集』 卷十八, 家戒2, 「示二子家誡」 “及既年深, 處坎如夷, 或登山臨水, 懷緒曠達, 發之爲詩, 辭旨豪宕. 然至樂在於經傳, 竟不肯留心推敲, 集中諸詩, 多不愜意, 有爲我刊汰瓦礫, 存其的歷者, 斯知音也.”

경의 탄핵 사건인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어 제주도로 첫 유배를 당했다. 첫 유배는 1840년부터 1849년까지이고, 두 번째 유배는 함경도 북청으로 1851년부터 1853까지이다.

추사의 제주 유배 시 첫 작품으로 〈瀛洲禾北鎮途中〉이 있다. “마을 안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는, 임금에게서 추방당한 신하의 얼굴 앞땀기도 하네. 마침내 죽을 고비 넘어서 다다른 곳, 임의 은혜 멀리 미쳐 바다 물결 아니 쳤네.”⁵⁶⁾라고 하여, 조선 후기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파벌싸움에서 희생된 추사가 영주(제주) 화북진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이다. 추사는 마을 아이들이 귀양 온 신하를 가증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自嘲하였다. 귀양 가는 도중 바다를 건널 때 “큰 파도 속에서 천둥 벼락까지 만나, 생사가 순간에 달린 지경”⁵⁷⁾이라 하여, 위험한 상황 속에서 무사히 제주에 안착한 것을 聖恩으로 여겨, 儒者의 면모를 보였다. 철저한 유자는 자연을 노래하는 가운데 현실을 염려하듯이 어떠한 곳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다. 귀양 보낸 그 임금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철저한 유자의 지조인 것이다. 또한 〈元宵述懷〉에서 정월 대보름달을 보면서, “경루라 옥우의 등글등글 밝은 달은, 은혜 빛을 나눠 주어 바다에 이르렀네.”라고 하여, 聖恩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통해 戀君의 情을 표현하였다. 〈次癸詹〉에도 “장차 말을 타고 상전을 지나려니, 秦나라 동남동녀가 약수에 배탄 것 가소롭네. 비로소 알았네, 삼신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성은 입어 죽지 않음이 바로 신선이지”⁵⁸⁾라고 하여, 聖恩으로 죽지 않고 신선처럼 살고 있다는 달관적 태도이다. 성은으로 인해 유배지에도 무사히 도착했고 성은으로 인해 정월

56) 『阮堂先生全集』 卷十, 「瀛洲禾北鎮途中」. “村裏兒童聚見那, 逐臣面目可憎多. 終然百折千磨處, 南極恩光海不波.”

57) 『阮堂全集』, 卷首, 閔奎鎬, 「阮堂金公小傳」 “大風濤中作霹靂, 死生俄忽.”

58) 『阮堂先生全集』 卷十, 「次癸詹」三首 중 제3首, “行當騎馬過桑田, 可笑秦童弱水船. 始識神山非別處, 聖恩不死卽神仙.”

대보름날 달맞이도 하고, 성으로 인해 진시황 때 동남동녀들이 찾던 扶桑 곧 제주도에서 신선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김태수는 「秋史의 流配詩 研究」에서 ‘연군지정의 시가 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연군이 절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투적이며 피상적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실에 연연하여 회귀하려 하기 보다는 이를 초월하려 했기에 연군지정에 대한 시가 많지 않다.⁵⁹⁾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재출사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다.’⁶⁰⁾고까지 하였다. 이에 연장선에서 부영근도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에서 ‘유배 시에 연군지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회 진출에 대한 미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⁶¹⁾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자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다. 유자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다. 『논어』 「미자」편 ‘우경’장에 공자의 제자 자로와 은둔자인 장저와 결익의 대화에서 ‘왜 임금이나 위정자들이 피하는 공자를 따르느냐? 세상을 피하는 우리들을 따르지 않고?’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이에 공자가 ‘우리 인간 세상에 도가 베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 구절에 대한 程子の 주에 “성인은 감히 한시라도 천하를 잊는 마음을 두시지 않았다.”⁶²⁾라고 하였으며, “장자가 이르기를, 성인께서 仁을 행하시는 방법은 무도한 세상이라고 천하를 기필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다.”⁶³⁾라고 한 것처럼, 철저한 유자는 도가 베풀어지지 않는 세상을 두고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추사도 지금 도가 세상에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 없다.

59) 김태수, 「秋史의 流配詩 研究」,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42쪽.

60) 김태수(1992), 위의 논문, 79쪽.

61) 부영근,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 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43쪽.

62) 『論語』 「微子」篇 ‘耦耕’章 註 “程子曰, 聖人, 不敢有忘天下之心.”

63) 『論語』 「微子」篇 ‘耦耕’章 註 “張子曰, 聖人之仁, 不以無道必天下而棄之也.”

유자는 언제나 孔子의 道만을 위해 道로써 이루어지고 德으로써 만인 앞에 우뚝 선 분(道成德立者)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요산요수(樂山樂水)하며 마음껏 자연을 노래하면서 聖恩을 그리워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철저한 유자는 자연을 노래하는 가운데서 현실을 염려하는 것이다. 추사의 연군도 그와 같다.

추사가 유배지에 대한 생각과 토착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주조(주작)라 하늘가 한 바다 가장자리,	朱鳥天邊大海湄,
삼산산 꿈틀꿈틀 서쪽 산맥 뻗었네.	神山蜿蜒走西支.
들 가운데 작은 고을 겨우 말[斗]만한데,	野中小治僅如斗,
푸른 돌의 성곽은 짧은 대울타리로 잇닿아 있네.	靑石郭連短竹籬.
홍연의 기운은 푸른 노을의 비석이요,	汞鉛寶氣靑霞碣,
송죽 같은 굳센 절개 동문의 사당이네.	松竹勁節東門祠.
인가들은 모두 다 남극성 아래 의지하고,	人家盡依壽星下,
수선화는 천 송이에 또 다시 만 가질세.	水仙千朵復萬枝.

원우의 죄인(소동파) 신세 해주 밥을 실컷 먹고,	元祐罪人惠州飯,
입극의 바람비에 유배지마저 잊었다고.	笠屐風雨忘居夷.
섬 아이 바다 남정 근자에 친숙해져,	島童海丁近相熟,
이따금 현정(玄亭) 찾아 기자(奇字)를 묻곤 하네.	有時叩玄兼問奇.
독표(거위)는 화저의 고기보다 더 나은 듯,	獨豹勝似花豬肉,
보리누룩 새로 빚은 탁주 한 병에다.	麥麴新醅酒一鴟.
오색구름 많은 곳은 꿈조차 실 같은데,	五雲多處夢如縷,
답답 깨는 봄 산은 푸른 눈썹 비끼었네.	破悶春山橫翠眉. ⁶⁴⁾

〈偶作〉의 전반부는 제주도 유배지의 모습이고, 후반부는 추사의 유배지

64) 『阮堂先生全集』 卷九, 「偶作」.

상황이다. 전반부의 내용은 큰 바다 한 가운데 삼신산이 있고 말[斗]만 한 작은 고을에 추사가 고립되어 있다. 마을 사당에는 절개가 굳센 五賢이 모셔져 있고, 육지에서 보기 드문 수선화는 지천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추사 자신을 해수에 유배 온 소동파에 비유하면서, 샷갓에 나막신 신은 동파적 삶의 모습으로 달관적이다. 그리고 섬지방 아이들과 이제는 조금 친해져 어려운 글자를 묻기도 하고 거위 고기에 탁주 한 병을 가져와 권하기도 하였다고 하여, 양옹의 이야기를 用事하였다. ‘花豬肉’은 동파의 〈동생이 야위다는 말을 듣고〉⁶⁵⁾의 시구 ‘5일에 화저육을 한 번 보고, 10일에 누런 닭죽을 한 번 만나네.’를 모방하였다. ‘花豬肉’은 돼지의 털빛이 알록달록한 것을 지칭한 말로, 돼지고기를 이른다. 추사는 동파의 삶과 그의 문학 작품을 모방하여 동파와의 일체감을 느끼면서 토착민들과도 거리감도 좁혔다. 그러면서도 추사는 동파의 돼지고기보다 거위고기가 낫다고 하여, 자신의 처지가 동파보다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오색구름 같은 꿈은 실낱같이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다. 유배지의 단절감을 동파의 삶에 적용하여 극복하려고 하나, 여전히 견디기 어렵다.

한편으로 유배라는 형벌로 인해 오는 단절의 심리를 일상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용바위의 턱 밑에서 맑은 샘물 솟아나서, 좋은 차에 맑은 샘물 지도 찾아 가졌으니. 이 샘물 맛 성 안팎에 나눠 마셔보게 하면, 올라(제주) 사람들 또한 품평할 수 있지 않겠는가?”⁶⁶⁾라고 하여, 제주도 옛 샘물에서 물을 가져 와 차를 끓이는 것으로 유배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 ‘澗水圖’는 샘이 있는 위치이며 ‘泉味試分’은 샘에서 떠 온 물로 끓인 차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 차를 성 안팎 사람들에게 마셔보게 한다면 워낙

65) 蘇軾, 「聞子由瘦」, 『蘇東坡全詩集』第五卷, 誠進社, 1978, 817~818쪽. “五日一見花豬肉 十日一遇黃雞粥.”

66) 『阮堂先生全集』卷十, 「汲古泉試茶」. “擲龍領下嵌明珠, 拈取松風澗水圖. 泉味試分城外, 乙那亦得品茶無.”

물맛이 좋은 물로 끓인 차라서 차 맛이 좋기 때문에, 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올라 사람들도 그 차에 대해서만큼은 좋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뜻이다. ‘品茶無’는 平仄과 韻字 때문에 ‘無品茶’를 도치시켰다. ‘松風’을 차의 이칭이다. 추사는 유배의 괴로움을 차 끓이는 소일거리로 잊고자 하였다. 그리고 9월 9일 중양절 날 제주도 풍속을 소개하기를, “호박떡을 가져다가 국화 경단에 비기니, 마을마다 맛을 다뤄 잔치 한창이네. 어리석은 생각 평생 사라지지 않아, 붉은 수수 옛 터럭에 꽃آمد오.”⁶⁷⁾라고 하여, 국화 대신 호박떡을 만들어 먹는 제주도 풍속을 보면서 중양절의 일들을 떠올렸다. 중양절은, 머리에 산수유 열매를 꽂고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며 액을 쫓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명절이다. 지금 제주 유배지에서 중양절을 맞이했는데, 육지와는 조금 다른 풍속이지만, 그래도 어리석게 옛일들이 생각난다. 액을 쫓기 위해 형제들과 산수유가지를 찾아 온 산을 헤매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고향의 형제들이 그림다. 화려하고 즐겁던 과거를 잊고자 하지만 자꾸 되살아나 괴롭다.

가운데 달고 가장자리 씌울 헤아리지 않고,	不算話中與苦邊,
하늘 바람 한 샷갓은 역시 인연 따라 설레네.	天風一笠亦隨緣.
휘날린 백발이 삼천 장이라면,	飄零白髮三千丈,
홍진에 허덕인 것이 육십 년이 아닌가.	折磨紅塵六十年.
내 깊은 바다를 좋아하여 자주 술을 마시니,	我愛沈冥頻中聖,
먼 귀양 가없다고 신선이라 칭해주네.	人憐遠謫漫稱仙.
처마 밑에 절뚝절뚝 때로 약을 내리면서,	蹣跚簷底時行藥,
차 끓이는 연기 하냥 세월을 보낸다고.	消受茶爐伴篆煙. ⁶⁸⁾

67) 『阮堂先生全集』 卷十, 「海上重九無菊. 作瓜餅」. “南瓜餅賽菊花糕, 村味爭教野席高. 癡想平生銷不得, 茱萸紅到舊鬢毛.”

68) 『阮堂先生全集』 卷九, 「偶作」.

불교의 緣起 사상이 반영된 시이다. 결과 속이 다름을 계산하지 말고, 인연 따라 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파의 유배시절을 갖 쓰고 나막신 신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동파가 유배의 어려움을 견디어 낸 달관의 모습으로, 추사도 따르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유배된 지 5년 차에 백발 육순 노인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깊은 바다 바라보기를 좋아하고 자주 술을 마신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신선이라고 칭한다. 유배지에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추사다. 그렇지만 동파의 달관의 삶을 생각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달랜다. “빈중성(頻中聖)”은 이백의 〈증맹호연〉시를 모방한 것으로, ‘자주 술을 마시다’이다. ‘中聖’은 魏나라 조조가 금주령을 내렸을 때 술꾼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청주를 聖人에, 탁주를 賢人에 비유한 데서 유래된 말로, 술을 지칭한다.

추사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수선화를 자기 모습에 비유하였다. “한 점의 겨울 마음 송이송이 등글어라, 그윽하고 담담하고 냉철하고 빼어났네. 매화가 높다지만 뜨락을 못 면했는데, 맑은 물에 해탈한 신선을 보겠구려.⁶⁹⁾라고 하여, 겨울에 핀 그 모습이 그윽하고 냉철한 품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조의 상징인 매화와 견주면서 수선화는 맑은 물에 해탈한 신선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추사 자신으로, 이제는 지조 있는 일반적인 선비보다는 해탈의 경지에 든 신선이다. 동파가 좌천과 유배의 어려움을 신선사상으로 극복한 것처럼, 추사도 신선 세계로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현직인들은 수선화의 가치를 몰라, ‘보리 갈 때면 다 파버린다.’⁷⁰⁾고 하였다. 추사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는 토착민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69) 『阮堂先生全集』卷十, 「水仙花」. “一點冬心朶朶圓, 品於幽澹冷鶩邊. 梅高猶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70) 『阮堂先生全集』卷十, 「水仙花」. “一點冬心朶朶圓, 品於幽澹冷鶩邊. 梅高猶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수선화가 여기나 저기나 곡으로 헤아릴 만하고 전묘의 사이에는 더욱 성한데 지방 사람들은 무슨 물건인지도 알지 못하고 보리 갈 때면 다 파버린다.”

토착민의 일상사를 보면서 유배의 괴로움도 있고 있다. “어허 좋다 갠 날 지평 잡힌 마당 안에, 兩岐는 지난해와 길이가 어떠한지. 도리깨질 소리는 공중에도 안 끊기니, 천상이라 인간이라 보리밥이 향기로워.”⁷¹⁾라고 하여, 보리타작하는 장면을 그렸다. 다산이 농민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추시는 여전히 이방인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바닷배에 실린 청어 온 성에 가득하니, 살구꽃 봄비 속에 팔이꾼 외는 소리. 구워 노니 해마다 먹던 맛 그대론데, 새 철이라 눈이 끌려 특별히 정이 가네.”⁷²⁾ 살구꽃이 피는 시절이니 봄철이다. 청어가 풍년이라 외치는 팔이꾼의 모습과 그 청어 맛에 정이 간다. 현실의 어려움을 토착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 정도로, 소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단오날 모습도 보자. “단오날 씨름 놀이 마을마다 장정이라. 천자 앞에서도 재간을 놀렸다네. 이기건 지건 간에 모두가 기뻐하여, 푸른 버들 그늘 속에 온 당이 들썩이네.”⁷³⁾라고 하여, 씨름을 보는 것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 단오의 유래는 굴원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보통 조선전기의 문인들은 단오하면 굴원의 삶과 죽음을 통해 충절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의 작시 법이었다. 그런데 추시는 유배객이면서 굴원을 제재로 한 시를 창작하지 않았다. 자기가 흠모했던 동파가, 죽음으로 충절을 드러낸 굴원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충절의 굴원을 소재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추사 시의 한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유배지에서의 교육에 관한 것도 살펴보자. 소동파가 해남도 유배지에서 학동을 가르쳐 학문의 섬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추사도 토착민들에 대한

71) 『阮堂先生全集』卷十, 「打麥二絶 寄北青明府便面」. “大好新晴碌礪場, 兩岐何似去年長. 空中不斷連枷響, 天上人間麥飯香.”

72) 『阮堂先生全集』卷十, 「青魚」. “海舶青魚滿一城, 杏花春雨販夫聲. 炙來不過當年味, 眼逐時新別有情.”

73) 『阮堂先生全集』卷十, 「端陽」. “端陽角觥盡村魁, 天子之前亦弄才. 勝敗紛紛皆可喜, 綠楊陰裏哄堂來.”

학문의 관심을 드러낸 부분으로 제주도 서당의 수학 분위기를 보여 준 시가 있다. “이어(9월) 바람 거세어라 기럭 연기 비졌는데, 몇 그루 능수버들 너댓 집을 가리었네. 무슨 일로 소라 등잔 깜박이는 불빛 밑에, 고기잡이 노래보다 글소리가 많은 건지.”⁷⁴⁾라고 하여, 학동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늦가을 바람이 불자 기러기는 연기처럼 날아들고 몇 그루의 버드나무 사이로 마을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라 껍데기로 밝힌 등불 아래에서 글 읽는 소리가 고기잡이 노래보다도 크게 들린다. 이런 제주도 풍속에 추시는 위로받고 있다. 실제로 추시는 제주도 대정 향교에 疑問堂을 열어 가르침을 받으러 온 제자들에게 학문과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는 소동파가 담주에서 학풍을 고양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 “宋나라 蘇文忠公(소식의 시호)은 儋州에서 謫居하는 동안 학문을 가르쳐주고 도리를 알려주었으니 백성들이 점차 교화되었다. 해남 人文의 興盛은 곧 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⁷⁵⁾라고 한 것을 보면, 추사도 동파의 영향으로 자신도 유배지에서 제주 학풍에 이바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자신과 동파를 동일시하여 유배살이의 아픔을 잊고 해배를 기대했을 것이다. 따라서 추사는 20대에 청나라 여행에서 웅강방으로부터 동파의 이야기를 들은 후, 동파와의 인연을 중시했던 것 같다. 특히 유배살이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더 확연히 들어났다. “친위가 나의 입극도를 빌어 가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 물에 떨어뜨릴 뻔했다가 영령이 존재하여 지극한 보배를 보존하게 됐다. 편지를 받아 보니 흐뭇한 생각이 든다.”⁷⁶⁾라고 한 것처럼, 동파와 연결되어 있다. 제자 小癡 許鍊이 조자고의 연배본인 입극도를 빌려 가지고 가다가 비바람으로

74) 『阮堂先生全集』卷十, 「江村讀書」 “鯉魚風急雁煙斜, 數柳橫遮四五家. 底事枯蚌燈火底, 漁歌也小讀聲多.”

75) 『瓊臺記實錄』, ‘宋蘇文忠公之謫居儋耳 講學明道 教化日興 瓊州人文之盛 實自公始之.’

76) 『阮堂先生全集』卷十, 「天賚借余笠屐圖去, 值風雨, 幾乎落水, 英靈所在, 至寶是保. 書來相慰, 笠屐圖, 是趙子固硯背本也」.

인해 물에 떨어뜨릴 뻔했다가 영령의 보호로 무사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사는 동파의 혼령으로 인해 그 그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 “아득하다 칠백 년이 지나간 나머진데, 인간이라 입극 인연 또다시 접했구려.”⁷⁷⁾라고 하여, 추사와 동파가 동일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숭모하던 대상을 통해서, 유배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길 가는 사람들도 단비 앞에 말 내리니,	行人下馬短碑前,
김환심의 집에서 옛 자취를 전해오네.	金煥心家舊蹟傳.
굴림에 잔 올려 심사를 밝혔으니,	一酌橘林明志事,
생강 심던 그 해는 지금도 눈물뿌리네.	至今彈淚種薑年. ⁷⁸⁾

추사가 제주 유배 와서 본 것이 우암 송시열이 유배 왔던 자취를 기리는 “우재의 유허비”이다. 그 유허비를 보고 지은 시이다. 제주민들이 그 유허비 앞을 지날 때는 말[馬]에서 내려 경의를 표함을 통해 우암이 여전히 추앙받고 있는 인물임을 드러냈고, 우암이 유배살이 하던 김환심의 집터만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런데 1724년 집은 전소되고 집터만 남았는데, 1771년 권진응이 유허비를 세워 우암의 자취를 남겼다. 추사는 여기서 우암이 유배되어 아우와 손자에게 자신의 심사를 밝힌 글을 굴림서원에 고하게 한 일을 떠올리면서 五賢⁷⁹⁾ 중의 한 분인 우암께 잔을 올려, 지금 추사 자신의 심사도 우암의 그때 심정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의 현실에 초연하여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던 우암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 추사는 우암의 행적을 통해 자신의 슬픔도 드러냈다.

77) 『阮堂先生全集』 卷十, 「天賚借余笠屐圖去, 值風雨, 幾乎落水, 英靈所在, 至寶是保. 書來相慰, 笠屐圖, 是趙子固硯背本也.」 “蒼茫七百餘年後, 又接人間笠屐因.”

78) 『阮堂先生全集』 卷十, 「尤齋遺墟碑」.

79) 沖菴 金淨·圭菴 宋麟壽·淸陰 金尙憲·桐溪 鄭瀟·尤菴 宋時烈.

조선후기 고증적 실학자⁸⁰⁾다운 면도 유배 시에 드러나고 있다. <계침이 배가 표류되어 돌아온 사람에게서 일본도를 구득하여 보여 주기에 부질없이 이 시를 빠르게 대답하여 주다>⁸¹⁾에서 어떤 이가 옛 검을 일본도라고 가져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도가 아니라 秦나라 때 검임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연자방아와 물레방아를 대비하여, 연자방아의 효용성을 용마에 비견하였다.⁸²⁾ 제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연자방아에 대한 효용성을 극찬한 것이다.

실증과 관련 있는 시 중에 북청 유배 때 지은 시도 살펴보자. <석노시(石柝詩)> 서문에 “석부(石斧)·석족(石鑿)이 매양 青海의 土城에서 나오는데 土人들이 토성을 숙신(肅愼)의 고적으로 여기기에 이 시를 짓는다.”⁸³⁾라고 하여, 추시는 고증을 통해 사실을 밝혔다. “대개는 돌도끼나 아울러 돌촉들을, 청혜의 언덕에서 오다가다 얻는다네. 도끼는 바로 이와 같고 보형과는 다르지만, 측은 분명 어북에서 나온 것 같군그래. 돌 성질 금강과 맞설 만큼 예리하고, 돌무늬 일고 일어 고룩이 무리졌네.”⁸⁴⁾라고 하여, 고대의 석기를 대비하여 돌도끼와 돌화살촉이 생활도구이자 전쟁 무기임을 밝혀, 고증학적 실학자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북청에서의 토착민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피상적으로 바라본 작품도 있다. “나무껍질 지

80) 洪性敏, 「유배(流配)에서 자적(自適)으로」, 『儒教思想文化研究』 第77輯, 한국유교학회, 2019, 43쪽. 홍성민은 추사의 실학을 경제치용과 이용후생으로 대변되는 조선 후기 실학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고증학적 실학 곧 경전 고증학으로서의 실학이라고 하였다.

81) 『阮堂先生全集』 卷十, 「癸詹從漂船歸人 得日本刀而見示 漫此走呼贈之」 “情知刀臘是秦餘, 大食紅毛不啻如. 富士山光青入眼, 煩君更覓火前書.”

82) 『阮堂先生全集』 卷十, 「馬磨」 “人十能之馬一之, 三家村裏詔神奇 (중략) 引泉爲確亦巖材, 嘔嘶春歌莫見猜. 似向先天探至象, 悅疑龍馬負圖來.”

83) 『阮堂先生全集』 卷九, 「石柝詩」 “石斧石鑿, 每出於青海之土城, 土人以土城爲肅愼古蹟, 作此.”

84) 『阮堂先生全集』 卷九, 「石柝詩」 “大抵石斧並石鑿, 尋常得於青海曲. 斧乃似是異翻形, 鑿若分明出魚服, 石性銛利當金剛, 石紋作作暈古綠.”

붕 밑에 늪어 빠진 영감 할멈, 기장수수 바람결에 머리가 다 희었네. 밭 사이 한 가닥 길 실낱처럼 뚫렸으니, 으시으시 바슬바슬 그 속으로 뚫고 가네.”⁸⁵⁾라고 하여,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적이지 못하고 촌로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시는 조선 전기 유배객들이 즐겨 문학적 소재로 사용하던 굴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대신 소동파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는 젊은 날 청나라에서 만나 옹방강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학문적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고증적 실학자로서의 모습이 그것이다.

3)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의지와 사무사(思無邪)

면암 최익현은 어릴 때는 김기현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4세 때부터 부친의 명에 따라 성리학의 거두인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문인이 되었다.

철종 6년 1855년 정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원군의 실정을 상소하여 물러나게 하였으나, 君父의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명목으로 첫 번째 제주도 유배를 당했다. 유배기간은 1873년부터 1875년까지이다. 2차는 제주도 해배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명성왕후 척족 정권이 일본과의 통상 논의를 하자 체결의 부당함을 담은 斥和疏를 지부상소로 올려 1875년부터 1879년까지 흑산도 유배이다. 3차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창의토적소>를 올리고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라도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1906년) 항일저항으로 인한 투옥 사건이다. 상대편 군대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군임을 알고 투항하여 대마도로 압송되어 순국(1906

85) 『阮堂先生全集』 卷十, 「戲仿石湖俳體絕句」(석호[원나라 시인 범성대]의 체를 놀이 삼아 모방한 절구) “樺皮屋底老婆翁, 頭白黃梁玉齒風. 田間一路纔通線, 穿過蕭瑟颯中.”

년 11월 7일)하였다. 이렇듯 면암은 2번의 유배와 1번의 투옥이 있었다.

면암이 처음 제주도에 유배되어 쓴 작품을 보자. 우암에 대한 외경심이 드러났다.

한리산 한 봉우리,	漢挈山一點
아득한 바다에 떠 있구나.	積水渺茫中
원성(宋, 유안세)의 지조 없음이 부끄러울 뿐,	愧乏元城操
굴자(굴원)의 곤궁함이 어찌 흉이 되랴.	肯嫌屈子窮
밝은 빛 봉해의 달을 맞이하고,	光迎蓬海月
맑은 향기 굴림의 바람에 풍겨오네.	香襲橘林風
만리 밖에 임금과 어버이 계시니,	萬里君親遠
어디를 인연하여 이 마음 바치리.	緣何罄素衷

먼 곳에 노니는 건 남자의 일이라.	遊遠男兒事
온 누리도 한 방 안과 같다오.	八荒亦室中
북쪽을 바라보니 천극은 아득하고,	北瞻天極迥
남쪽을 건너니 땅도 막다랴네.	南渡地形窮
모든 시름은 물같이 흘러가고,	百念都成水
조각 돛을 바람에 맡겼어라.	一帆但信風
파옹(우암)의 그때 일을 생각하면,	巴翁當日事
다만 후인의 가슴만 격분하게 하네.	徒激後人衷 ⁸⁶⁾

1873년(41세) 11월 28일 제주도 위리안치 되어 가는 도중 梨津에서 패궁 현의 현판에 걸려 있는 시에 차운한 시이다. 전반부는 유배지 제주도의 모습을 바다에 떠 있는 한 점에 비유하여 격리된 곳임을 드러내면서, 송나라 때 7번 유배 갔던 元城 劉安世에 대비하여 면암 자신은 보잘 것 없는 존재

86)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掛弓軒. 次板上韻. 癸酉」.

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시대 초나라 충절가 굴원의 청렴결백한 삶이 흉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맑은 향기가 굴림에 풍겨온다는 것은, 굴원이 지은 <굴송>의 지조를 흠모하면서 한편으로 굴림서원에 배향된 五賢의 맑은 향기를 본받고도 싶다. 만 리 밖에 있는 처지로 인해 연군과 효도에 대해 유배객으로서의 안타까움이다. 후반부는 어디에 처해도 마음은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서 유배객의 막막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시름 물같이 흘러 보내고 자연에 의탁하여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암이 제주도 유배되었던 일이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격분된다. 우암의 그때 일이란, 숙종 때, 장희빈이 낳은 원손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다가 제주도 귀양 왔던 사건이다. 의리를 중시했던 우암이 유배를 온 것처럼, 면암 자신이 한 일도 의리라고 확실하기에 울분을 느끼는 것이다. 면암이 우암의 행적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제주도가 단순히 형극의 땅이 아니라 오현의 자취가 남아 있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현 특히 우암의 성리학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면암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유안세·굴원·우암 등의 행적을 미루어 보면, 면암의 행보를 짐작케 한다.

「연보」에 “선생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주자서』를 외고 또 교궁에 간직된 『우암집』 1권을 빌려 잠심완색(潛心玩索, 마음을 쏟아 즐기면서 사색하다)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 버렸다.”⁸⁷⁾라고 한 것을 보면, 면암은 주자와 우암의 삶을 推尊하였다.

면암이, 우암의 제주 생활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를 보고 쓴 시가 <遺墟碑>로, <우옹적려비를 찾아보고 천일정·운주당을 거쳐 굴림서원 옛터에서 서성이다 돌아와서 운자를 뽑아 품은 뜻을 붙임(還京奉審尤翁謫廬碑閣, 由天一亭, 運籌堂, 至橋林書院舊址, 徜徉而歸, 拈韻寓懷)>의 4수 중 첫 번째 수이다.

87) 『勉菴先生文集』年譜, “先生杜門燕居, 日將朱子書, 循環誦讀, 又借校宮所儲尤菴集一帙, 潛心玩索, 頓忘湘累之苦.”

유배지에서 하룻밤은 강개만 일어나고,	一宿楚山慷慨多,
남은 마음 여기 왔건만 다시 어찌리.	餘心到此更如何.
생강 심고 예론 펴낸 그때의 일이,	種薑編禮當年事,
오히려 맑은 바람으로 얼굴 스쳐 불어가네.	猶有清風拂面過. ⁸⁸⁾

유배지에서 하룻밤을 보낸 우암은 불의에 저항한 의기가 북받쳐 원통한 마음이 일어났고, 그 원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유허비가 있는 곳까지 왔다. 그래서 우암이 제주도에서 유배 오게 된 일과 와서 한 일을 술회하면서 우암이 남긴 맑은 유품 곧 유배지에서 유유자적 했던 삶과 의리에 맞지 않는 일이 부당한 일임을 고했던 역사적 사실 등이 남아 있다고 했다. 따라서 면암은, 우암이 제주도 귀양 와서 머물던 곳에 세워진 유허비를 보고, 우암 같은 태도로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리고 우암의 유배지를 ‘초산’이라 하여, 굴원에 비유하여 충절을 드러냈다. 추사와 차이를 보였다.

〈書院舊址〉는 4수로, “멀리 쇠도끼 침략하니 소매에 굴 그늘지고, 이끼 낀 자취 어루만지니 눈물 옷깃을 적시누나. 미움을 물리침은 예로부터 망령 된 사나이, 더러움 떨쳐냄은 대동천하 마음이라.”⁸⁹⁾고 하여, 서원철폐로 인하여 지조 지킴이 사라진 현실을 비난하였다. 유배지의 굴림서원은 충암 김정·규암 송인수·동계 정은·청음 김상헌·우암 송시열 등 五賢을 배향하던 서원이었다. 그런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인해 쇠도끼의 비극을 맞았다. 그로 인해 면암은 굴원의 지조를 지녀야 할 유자들이 사라져 눈물

88)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奉審尤翁謫廬碑閣, 前面, 書尤菴宋先生謫廬遺墟碑十字, 牧使張寅植, 記其陰, 由天一亭, 竹西樓舊址, 卽琉球太子被害處, 李直植, 改名翊建, 運籌堂, 李山海筆, 謂是龍蟠形, 以北相望地, 又有觀德亭, 讓寧大君筆, 謂是虎蹲體, 至橘林書院舊址, 曾享冲菴, 圭菴, 桐溪, 淸陰, 尤翁五先生, 棟宇無形止, 惟有曾朱壁立模刻石壁及張寅植所撰碑, 豎在草莽中, 徜徉而歸, 拈韻寓懷. 甲戌, 「右遺墟碑」

89) 위의 시 「書院舊址」. “魁斧遠侵橘柚陰, 摩挲苔迹淚盈襟. 却憎從古妄男子, 猥拂大同天下心.”

이 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동인의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뜻을 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면암이 우암의 유배지와 배향된 서원의 옛 터에 와서 다짐하는 것을 보면, 우암에 대한 흠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스승 화서 이항로가 사승 관계로 생각하는 우암이고 보니, 면암 자신과도 私淑관계가 된다. 성리학에 대한 전통의 고수와 명나라에 대한 의리, 왕손의 적통을 주장했던 명분과 의리를 중시했던 우암에 대한 면암의 의리를 생각하게 한다.

면암이 제주 유배지에서 행한 교육도 살펴보자. “성인의 말씀은 천년에도 분명하니, 섬 마을에 오히려 글 읽는 소리 들려오네. 가여워라 도도히 흐르는 명리배들은, 매양 제 몸만 알고 나라 걱정 가뻐이 하네.”⁹⁰⁾라고 하여, 성현의 말씀은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분명하기에 이곳 유배지에 아이들이 경서 읽는 소리가 오히려 크게 들리는데, 조정의 타락한 무리들은 자신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사육만 채운다. 그래도 유배지에 성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 희망은 있다. 그런 희망으로 학동들을 가르칠 목적이다. 유자는 어디에 처해도 세상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 유배에서 풀러난 뒤 몇 달도 안 돼 지부상소로 자신의 뜻을 전했지만, 오히려 관철은 안 되고 흑산도 유배 길에 오른 면암은, “봄이 와서 얼마나 배 띄우기 생각했던가? 오늘에야 순풍 불어 가히 거슬러 갈 만하네.”⁹¹⁾라고 하여, 봄나들이 나온 어옹 같다. 흑산도 유배에서 자연을 즐기는 여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쪽 기운이 대낮에 기승을 부리니, 우리 도는 어찌 이렇게 외로운가?”⁹²⁾라고 하여, 서학으로 인해 삼강오륜이 무너짐을 통탄하였다. 성리학의 도를 지켜 전통질서의 붕괴를 경계하여, 현실에 대한 염

90)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偶吟」 “聖言千載也分明, 島戶猶聞讀字聲. 可惜滔滔名利窟, 每緣身計國憂輕.”

91)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舟于永山前洋」. “春來幾擬訪漁舟, 此日輕風可溯流.”

92)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漫成」. “西氣驕白日, 斯道一何孤.”

려를 드러냈다.

면암은 자기 자신의 기개를 고송과 학에 비유하였다. “나그네 책상 무궁한 취미는, 성긴 소나무 물 건너 있구나. 산과 바다 기운에 함초롬히 젖고, 눈과 서리 한기에 목욕하도다. 한결같은 절개 뜻을 옮기기 어렵고, 백년이 가도 얼굴을 바꾸지 않네. 사랑스런 두세 마리 학, 때로 바람 띠고 내려와 앉네.”⁹³⁾라고 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소나무를 완상하고 있다. 그 소나무는 해풍과 눈서리 등 온갖 시련에도 의연한 자태이다. 이는 유배살이 하는 면암 자신일 것이다. 곧은 절개는 백 년을 가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知音인 고고한 학이 찾아주기도 한다. 절대 고독의 공간에서 절대 의지를 드러내었다. 고독의 길일 수 있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굳은 의지의 모습이다. 이것이 유자인 면암의 유배지 흑산도 삶의 태도이다. “아름다운 색과 맑은 향기, 그야말로 처사가 가꿀 것이지. 桃李와 함께 피는 것 부끄러워하여, 늦게야 가을날에 홀로 피네.”⁹⁴⁾라고 하여, 국화의 지조로 면암 자신에 비유하였다. 봄철에 피는 흔한 꽃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傲霜孤節의 국화인 것이다. 이처럼 흑산도에서의 면암은 자연물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의지와 지조를 상징화하였다.

흑산도에 도착했을 때 지기 重菴 金平默이 보내 온 시에, “재주 있고 운 없기는 초나라 영균인데, 두 번째 바다 귀양 어느 날 돌아오리.”⁹⁵⁾라고 하여, 중암은 면암을 초나라 충절가 굴원에 비유하였다. 자타가 공인한 충절가 면암이었던 것이다. 중암의 시에 면암이 차운하기를, “벼슬하든 귀양가든 몸 가누기 똑같고, 괴로움과 즐거움 들고 도는 것.”⁹⁶⁾이라고 하여, 자

93) 『勉菴先生文集』卷之一, 「古松」. “旅榻無窮趣, 疎松隔水端. 浸淫山海氣, 沐浴雪霜寒. 一節難移志, 百年不改顏. 愛看三兩鶴, 時帶下風還.”

94) 『勉菴先生文集』卷之一, 「黃菊」. “佳色兼清馥, 端宜處土培. 羞同桃李節, 遲向九秋開.”

95) 『勉菴先生文集附錄』卷之二, “有才無命楚靈均, 再放沅湘幾日還.”

96) 『勉菴先生文集』卷之一, 「次重菴金丈平默寄示韻」. “居官居謫底身均, 一苦一

신은 벼슬하든지 유배 가든지 그 功過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하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은 직설적이다. “듣건대 우리 신하 왜적을 맞이한다지, 이 한 몸 응당 생사가 걸리겠지.”⁹⁷⁾라고 하여, 왜적과 내통하는 자가 조정에 있다면 이 한 목숨 걸고라도 물리치겠다는 다짐이다.

보통 유배 시는 고독과 감상, 그리고 자탄에 빠지기 쉽다. 유배는 환국과 당쟁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면암은 국정의 혼란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유배의 길로 내몰렸다. 그러기에 그의 유배 시 또한 남다른 면이 있다. 그 남다른 부분은 선비정신의 발로로 충절과 연군이 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

모든 일이 뜻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萬事曾聞有志成,
해를 넘겨 고향에서 몸만 여위네.	跨年闕下置身輕.
한 치의 충성 못 바치고 몸만 먼저 포로 되니,	寸丹未效俘先及,
다시 무슨 말로 성명에 보답할까?	更作何辭答聖明. ⁹⁸⁾

뜻이 있으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데, 해를 넘겨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유배객이 되었다. 그래서 성은에 보답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해 저문 우리나라, 우리 임금 스스로 성명하셔. 외로운 신하 편벽되어 사랑만 입고, 죄 쌓으며 지금껏 살아 왔네.”⁹⁹⁾ 거듭된 상소로 죄만 짓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신하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흑산도에서 토착민과의 관계는 “이곳에 재미없다 하지 말라, 집집마다 햇보리에 환호성이 높네.”¹⁰⁰⁾라고 하여, 토착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

甘自往還.”

97) 위의 책, “聞道東槎迎賊至, 此名應在死生間.”

98) 『勉菴先生文集』 卷之二, 「被囚日獄口號 乙巳」.

99) 『勉菴先生文集』 卷之二, 「布德門外待命 甲辰」. “歲暮三韓國, 吾王自聖明. 孤臣偏被眷, 積罪至今生.”

봄으로써 유배생활의 적응을 보였다. 또한 “궁벽한 곳 그 누가 내 슬픔을 알리오, 우연히 만난 그대가 참으로 감사하네.”¹⁰¹⁾라고 하여, 우연히 만난 유배지 주민과 어울림은 면암의 적응도를 짐작케 한다.

다음은 긴 서문과 함께 전하는 시로, 병자년 추석날 지은 것이다.

주민을 맞이하여 말씨를 들어 보니, 모두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도덕을 높이고 오랑캐를 천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절대로 조정에 있는 사대부들이 발돋움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는 세상의 많은 시비와 득실이 일절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갠 낮과 밝은 밤에 오직 돌밭에는 소 모는 소리와 푸른 바다에 노 젓는 노래만이 들려오니, 武陵桃源이라도 이 경치에 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마음에 두렵고 눈에 해괴하였던 것들이 점차로 소멸되고 의연히 참선(參禪)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뒤에 도산(陶山)의 『절요』(節要, 이황이 『주자대전』에 있는 주자의 편지를 뽑아 엮은 『주자서절요』를 말함 30권 10책)를 읽고 파옹(巴翁, 송시열)의 鐵嶺詩¹⁰²⁾를 외면서, 무엇어 체득하고 읊조리며 창달시키니 온 천하 사물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데 귀양살이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¹⁰³⁾

우이도 산봉우리 높아 구름에 닿았는데,	一峰牛耳接雲高,
오르고 올라도 혼연히 피로를 잊었네.	登陟渾忘氣力勞.
사랑할 손 저 바다의 수없는 섬들이여,	可愛層溟多少嶼,

100)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順天士人趙鍾憲, 靈巖河權默入來, 相守數日, 拈韻共賦. 丙子(1876)」 “居久莫嫌滋味薄, 家家新麥動歡聲.”

101) 『勉菴先生續集』 卷之三, 「黑山叙懷」 “僻地誰憐楚客悲 邈顏今日感親知.”

102) 宋時烈, 『宋子大全』 卷一, 「登鐵嶺吟」. “行登鐵嶺顛, 我心還如鐵. 縱乏器之誠, 却耐西山血. 回首望西方, 陰雲壅不決. 願言西方人, 丹霞佩明月.”

103)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登牛耳 小黑山一名 口號」 “應接民人, 聽其語說, 舉知尊君卑臣, 貴名教而賤夷狄, 絕非朝廷士大夫識見所可企及. 凡世外是非欣戚, 一切不入耳孔, 晴晝月夕, 惟聞石田叱牛聲, 滄波搖櫓歌而已, 雖武陵桃源. 未足以喻其勝也, 於是向之惱於心駭於目者, 漸次消磨妥帖, 依然有坐禪入定之意. 然後讀陶山節要之篇, 誦巴翁鐵嶺之詩, 涵濡以體之, 諷詠以暢之, 舉天下之物, 不足以奪吾方寸, 而竄謫苦辛, 不足論也.” 「登牛耳 小黑山一名 口號」 ‘序文’.

일만 년 끈추 서서 파도 마주하네.

萬年壁立敵洪濤.¹⁰⁴⁾

서문의 내용을 보면 주자의 글과 우암의 시로 마음속에 품은 뜻 곧 성리학적 전통 고수는 여전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유배지에서 토착민의 생활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다. 소흑산도(우이도) 자연에서 무릉도원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상의 시비와 이해득실이 귀로 들어오지 않고 소흑산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 뿐이다. 성리학의 정통으로 주자를 비롯하여 퇴계와 우암의 글과 시를 읽고 읊조리며 세상사의 일들과 귀양살이에서 오는 잡다한 생각 등 괴로움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이도 최고 높은 산에 올라 공자의 浩然之氣¹⁰⁵⁾를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오르고 올라도 피로를 느낄 수 없다. 더 나아가 일만 년 동안 파도에 씻겨도 변함없는 섬들처럼, 면암의 충절도 변함이 없다.

선행 연구 중에 위의 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자의 이상을 치국평천하¹⁰⁶⁾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유자의 궁극적 목적은 성의·정심·수신에 있기 때문이다. 일의 근본은 성의·정심·수신으로, 본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 도를 세상에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치국과 평천하는 末에 해당된다. 본말이 전도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더위가 무서워 때로 그늘에 앉으며,
삼년을 다만 굴원처럼 읊었네.
섬지역이라 좋은 일 없다 말라.
백운 흐르는 물 다 친구로다.

怕炎時或坐輕陰,
三載徒勞屈子吟.
莫謂海邦無好事,
白雲流水共知音.¹⁰⁷⁾

104)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登牛耳 小黑山一名 口號」.

105) 『孟子』 「盡心」章上. “孔子曰, 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106) 서성우·양보경, 「면암 최익현의 흑산도 유배 한시에 드러난 소통의식」, 『韓國詩歌文化研究』 제37집, 韓國詩歌文化學會, 2016, 153쪽.

107) 『勉菴先生文集』 卷之一, 「步出松陰」.

한 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을 찾으면서도 3년 동안 귀양살이 초나라 충신인 굴원에 비유하여 충절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굴원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흰 구름과 흐르는 시냇물이 知翫이 될 수 있기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였다. 굴원에 비유한 자부심과 유유자적의 경지로 유배살이의 괴로움을 달래고 있다.

면암은 의병을 모집하는 「재격문(再檄文)」에서 “떡리수(汨羅水)의 의관(衣冠)을 슬퍼하니 한갓 죽기만 하는 것은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¹⁰⁸⁾라고 하여, 조국이 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떡리수에 몸을 던진 굴원처럼 혼자 죽을 것이 아니라, 일본과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굴원의 삶을 대하는 것이 흠모를 넘어 적극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바뀌었다.

대마도 수감 중에 쓴 시(1906년 7월 대마도 수감)를 살펴보면, “서양 풍조 몰려들어 풍속을 바꾸니, 머리 깎고 갓 찢으니 이 어느 때인가? 치포관은 공자의 제도를 의방하였지, 거동을 할 때면 반드시 예의 갖추기를.”¹⁰⁹⁾이라고 하여, 비록 감옥에 있을망정 의관을 갖추어 예의를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서양의 풍속으로 인하여 상투 베고 갓도 벗어버리니, 타인의 기준에 의해 자신이 지켜온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훼손되는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이다. 이렇듯 표현이 직설적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 중 일부는 자신의 심회를 성공적으로 시화하지 못했다고 하여 문학적 미감이 결여하였다고 했다.¹¹⁰⁾ 그러나 오히려 시대를 아파하고 풍속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옳은 생각을 드러낸 시이기에 思無邪¹¹¹⁾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한창훈은 ‘면

108) 『勉菴先生文集』 卷之十六, ‘雜著’ 「再檄文」.

109) 『勉菴先生文集』 卷之二, 「同囚諸君, 太半露鬢, 勸使各製緇布冠以著之」.(함께 옥살이를 하는 여러 친구들이 대개가 상투를 드러내고 있어 각자에게 치포관(緇布冠)을 만들어 쓰라고 권함) “捲地西風俗尚移, 毀形裂冕此何時. 緇冠依倣宣尼制, 動止從今可用儀.”

110) 안병렬, 앞의 논문, 347쪽.

111) 『論語』 「爲政」篇 ‘無邪’章 “子曰, 詩三百에 一言以蔽之하니 曰 思無邪니라.”

암이 자연을 즐거움 임금의 은혜로 돌린다거나, 앞으로의 정치생활을 근심하는 등의 모습을 작품 곳곳에서 보여줌으로써 문학 창작에서 성리학자로서의 한계를 느낀다.¹¹²⁾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유자로서의 문학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철저한 유자로서의 문학과 문학론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적극적인 현실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수기치인의 학문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겸양의 덕과 연군지정으로도 나타나며,¹¹³⁾ 교육이나 학업의 태도로도 나타난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 후학을 가르치는 태도나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저술활동을 하는 예도 적극적인 현실관인 것이다. 그리고 유자는 현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賞自然을 하다가도 연군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도를 찾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자들이 대부분 면암의 문학이 자연을 노래하다가 현실을 노래한 경우와 연군에 대한 직설적 표현으로 인해 문학 작품으로 미적 형상화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참된 유자라면 누구나 지녔던 선비정신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가 한다. 참된 유자는 겉꾸밈보다 알찬 내용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유가의 문학관인 문이재도론의 비평적 안목이면서 思無邪한 평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사무사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면암의 시문학이 대부분 직설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군지정과 우곡 그리고 자신의 지조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창·탁의 대조와 기백, 울분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었다. 서구 문물이 밀물처럼 덮쳐오는 개화기 그 시대적 사조와 그 사조 속에서 지키고자 했던 전통의 가치관 속에서 면암의 투쟁 의식은 전 생애를 걸쳐 관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암

112) 한창훈, 앞의 논문, 178쪽.

113) 정요일, 『한문학의 연구와 해석』, 일조각, 2000, 82~83쪽.

의 정신은 그 시대적 상황에 공명정대한 시정신이기에 思無邪라고 평할 수 있는 것이다. 작시자의 생각됨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3. 결론(結論)

다산은 장기 유배지에서 굴원과 소동파를 소재로 하여, 상상적 문학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유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굴원처럼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동파 같이 형제애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흑산도로 유배 가는 중형의 안부가 걱정되었기에 소동파가 옥중에서 동생 소철을 그리워한 시에 차운한 시를 지었던 것이다. 그리고 굴원의 작품을 접화하여 자신의 청렴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강진에서의 시는 장기에서 농민들에게 보였던 관심을 넘어 농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삶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지배층의 위치에서 농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농민의 시각에서 위정자의 모습을 풍자하였다. 이런 풍자의 문학이 시대를 아파하고 백성들의 삶을 사랑한 溫柔敦厚의 문학일 것이다. 이런 다산의 철학이 반영된 선비정신의 발로의 시가 강진 시절의 유배 시이다. 따라서 다산의 강진 유배 시는 개혁가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참여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사는 다산처럼 참여의식을 가지고 유배생활에 임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심정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유배의 어려움을 이겨냈다. 또한 충절가 굴원에 대한 시적 표현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유배문학의 한 특징이다. 유배지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고향 및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자연물을 통한 달관의 모습을 보였다. 마치 소동파가 황주의 어려움을 〈적벽부〉를 지어 그 시련을 극복했던 것처럼, 추사도 자연물에 의존하여 유배의 어려움을 견디었다. 그리고 우암에 대한 숭모는, 제주도 유배지에서 우암의

의리 사상을 흠모하는 차원으로, 단지 유배 온 사실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데 그쳤다. 두 번째 유배지인 북청에서는 역사적 사적을 고증하는 방법으로 유배살이를 하였다. 이는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적 태도로, 다산이 행한 경제학으로서의 실학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런 태도와 학문의 특징이 두 유자의 유배문학에 나타난 차이점이다.

면암은 우암의 대한 외경심이 특출했다. 우암의 유배지인 제주도를, 면암은 굴원이 조정에서 쫓겨나 실의에 잠겼던 楚나라 산야인 ‘楚山’에 비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암의 그때 일을 생각하면 격분(激忿)과 강개(慷慨)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는 면암이 성리학자 우암이 지녔던 의리에 대한 숭모의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흑산도 유배에서는 소나무·학·국화 등 자연물에 자신의 지조를 투영하여 우국지사로서의 충절에 변함이 없음을 보였다. 면암은 의병활동을 한 유자이기에 이론보다는 행동을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면암의 시는 술회시라도 감상에 젖지 않았으며, 恨과 눈물 등의 내용은 없다. 오로지 우국과 충절을 앞세운 우국지사의 직설적 표현의 시였다. 그 표현 이면에는 작시자의 진심어린 충절이 담겨 있기에 思無邪라고 평할 수 있다.

경제치용의 실학자 다산과, 고증적 실학자 추사, 성리학의 의리 사상을 고수한 면암, 모두 선비정신의 발로로 그들만의 정신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유배지에서의 문학을 창작하였지만, 그들의 시에 나타난 특징은 그들이 지녔던 사상만큼 차이가 났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蘇軾, 『蘇東坡全詩集』 第三卷, 第五卷, 誠進社, 1978.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第二十一卷, 「寄淵兒」

丁若鏞, 『第一集詩文集』 第十八卷 ‘文集’ 「家誡」 3

崔益鉉, 『勉菴先生文集』 年譜

한국고전종합 DB

丁若鏞, 『茶山集』

金正喜, 『阮堂全集』

崔益鉉, 『勉菴集』

2. 논저

金景國, 「勉菴 崔益鉉의 漢詩 研究」, 제주대 석사논문, 1989, 1~56쪽.

金蓮洙, 「梅月堂詩에 나타난 屈原 思想의 受容 樣相」, 『개신어문연구』 9, 개신어문연구회, 1992, 99~140쪽.

金奉楠, 「茶山의 長鬢 流配期 詩에 含蓄된 內面意識의 諸樣相」, 『大東漢文學』 35, 대동한문학회, 2011, 365~395쪽.

김치완, 「금정찰방 좌천시기를 전후한 다산의 시문학 연구- 자정(自靖)과 자헌(自獻)의 의식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23집, 영주어문학회, 2012, 49~85쪽.

김태수, 「秋史의 流配詩 研究」,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1~89쪽.

류소진, 「丁若鏞의 유배 시기와 蘇詩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 『중국문학』 9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235~254쪽.

박성혜, 「소식과 김정희의 유배문학작품을 통한 고전치유-제주 자발적 유배자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67~94쪽.

方貞玉, 「勉菴 崔益鉉의 文學研究」,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1~60쪽.

부영근,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 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23~47쪽.

서명주, 「秋史 金正喜의 流配期 정서와 茶思想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8, 1~169쪽.

서성우·양보경, 「면암 최익현의 흑산도 유배 한시에 드러난 소통의식」, 『韓國

- 『詩歌文化研究』 제37집, 韓國詩歌文化學會, 2016, 137~158쪽.
- 신두환, 「朝鮮士人들의 楚辭 受容과 그 美意識」, 『漢文學論集』 30집, 근역한문학회, 2010, 55~82쪽.
- 王建宇, 「金正喜와 蘇軾의 流配詩 比較 研究」, 중앙대 석사논문, 2017, 1~114쪽.
- 안병렬, 「정한숙·송민호, 양교수 회갑기념 특집호: 면암 한시의 내용 고찰」, 『어문논집』 23권, 민족어문학회, 1982, 321~348쪽.
-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1~157쪽.
- 양진건·강동호, 「면암 최익현 제주 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 논총』 제3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49~72쪽.
- 尹相淳, 「다산의 유배시 연구-신유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1~72쪽.
- 이호순,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 연구-제주도 유배기를 중심으로」, 『현대미술 연구소 논문집』 7권,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2004, 120~137쪽.
- 林煥澤, 「丁若鏞의 康津 流配時의 教育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회연구』 21권, 한국한문학회, 1998, 113~150쪽.
- 조규백,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중국문인 蘇東坡와 관련하여」, 『중국연구』 제3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3, 193~212쪽.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1, 1~472쪽.
- 진재교, 「조선조 후기 政治 場에서의 권력향배와 한문학-茶山 丁若鏞의 문학을 읽는 하나의 방법」, 『古典文學研究』 제4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37~372쪽.
- 정요일, 『한문학의 연구와 해석』, 일조각, 2000, 1~330쪽.
- 卓賢淑, 「茶山 丁若鏞의 流配書簡 研究」,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1~52쪽.
-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韓國漢詩研究』 28, 韓國漢詩學會, 2005, 387~419쪽.
- 韓昌勳, 「勉菴 流配漢詩 研究-제주도를 중심으로」, 『白鹿語文』 第7輯,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0, 161~180쪽.
- 洪性敏, 「유배(流配)에서 자적(自適)으로」, 『儒教思想文化研究』 第77輯, 한국유교학회, 2019, 35~61쪽.

ABSTRACT

Distinct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e exile Chinese poetry
written by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Yun, In-hyun

This study evaluate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e exile literature written by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onsidering the views of Dasan Jeong, Yakyong, Chusa Kim, Jeonghee and Myeonam Choi, Ikheyon, as exiles and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about them, and attempted to reveal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Further, this study examined the thoughts and lives of these three Confucian scholars in their early and late days at their places of exile, and determined how they overcame the difficulties they faced in.

The study found that the Chinese poetry and other works by Dasan reflected on the lives of the natives in his place of exile. He coped with his own sorrow and self-pity of being in exile, by writing about their difficult and unfair lives, thus indicating the positive features of engagement literature.

Chusa used his literary imagination to passively overcome his own difficulties in exile with a sense of shared commitment and philosophical maturity. He also made an effort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influenced by his young ages as a theorist.

Myeonam introduced the righteousness concept of neo-Confucianism. Instead of taking care of himself, he struggled with the reality of being a national patriot at the time of foreign invasion. His poetic expression was outspoken and emphasized this loyalty and fidelity.

Key Words

Confucian scholars, Exile literature, Dasan's Onyoudonhu(온유돈후), Chusa's positive literature, Myeonam's Samusa(사무사) Interlingual Translation, Intersemiotic Translation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